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년 9월)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3):55-64

중학생에서 기질 및 성격검사를 이용한 사상체질 특성 연구

성원영, 김지영*, 김락형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제인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Constitu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Won-Young Sung, Ji-Young Kim*, Lak-Hyung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Dept. of Neuropsychiatry, Je-In Oriental Medicine Hospital*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ofiles of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and Sasang constitu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
In this study, healthy 89 students(13 to 15 years old) except for 3 Taeyangin were analyzed; 37 Soyangin, 30 Taeeumin, 22 Soeumin. The Sasang Constitutional types were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nd the seven dimensions JTCI 12-18(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were compared among the different Sasang types using analysis of variance(ANOVA).

Results :
In the temperament dimensions, Soyang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aeeumin and Soeumin in Novelty Seeking(NS). Soeum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oyangin in Harm Avoidance(HA). Soyang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others in RD(Reward Dependence) (Soyangin>Soeumin>Taeeumin). In the character dimensions, Soyangi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oeumin in SD(Self-Directne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Persistence), and C(cooperativeness) and ST(self-transcenden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the temperaments and characters among Sasang types and could help adolescents to understand and develope themselves.

Key Words :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JTCI), Sasang constitution,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TS-QSCD)

투고 : 2011. 7. 29. 수정 : 2011. 9. 16. 채택 : 2011. 9. 16
교신저자 : 김락형,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번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l) 063-220-8617, Fax) 063-227-6234, E-mail) kimlak@hanmail.net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Ⅰ. 서 론

청소년기는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의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정상적인 성숙과정을 통해 성인의 성격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인격특성과 특질이 형성되고 구체화된다.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기간이며, 혼돈과 좌절, 도전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Hall은 이러한 긴장과 혼란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정의하면서도 또한 '새로운 탄생'의 시기로 보았는데, 청소년기에 보다 높은 수준과 완전한 인간 특성이 새로이 탄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의 지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와 혼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1,2].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기질 및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 성격, 또 더 나아가 어떠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 등의 자기개념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사상인의 네 가지 기본 성정(性情)이 고유한 상승 혹은 하강 운동을 통해 인체 장부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애노희락(哀怒喜樂)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 성정은 성정론(性情論)에서는 인성으로, 확충론(擴充論)에서는 바탕 된 성품과 표출된 감정으로, 사단론(四端論)에서는 장부의 생리, 병리 기전을 형성하는 기의 운동으로 서술되었는데 요약하자면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인성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3-5].

C. R. Cloninger가 개발한 성격 및 기질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는 기존의 다른 인성검사들과 달리, 인성(Personality)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로서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구분하여 인성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6-8].

사상체질과 TCI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등[9]의 QSCC-Ⅱ와 TCI의 비교분석 연구나 박 등[10]의 연구, 최[11]의 연구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질과 TCI의 비교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질과 기질 및 성격검사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TS-QSCD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을 통한 사상체질과 한국판 JTCI 12-18(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을 통한 기질 및 성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에서 체질에 따른 기질 및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개인의 체질, 기질 및 성격에 대한 이해와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상

2011년 5월에 울산의 모 여자중학교에서 스스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과거 및 현재 특정 질환 및 신체적 심리적 불편 증상을 가지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제외기준은 특정 질환자,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중인 자, 체질 설문 및 성격 및 기질검사(JTCI) 작성을 할 수 없는 자로 하였다. 만 14-15세의 중학생 총

9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체질설문지 미작성 1명, 성격 및 기질검사(JTCI)설문지 미작성 3명, 태양인 3명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사상체질의 판별

사상체질 판별은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체질을 판별하였다.

TS-QSCD는 2단계로 이뤄진 설문지로 첫 번째 단계에서 양인과 음인을 가리는 문항들에 의해 양인과 음인을 분류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음인 중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고 양인 중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을 가리는 방식이다[12]. TS-QSCD는 신 등에 의해 10대~60대를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TS-QSCD의 체질 판별률은 65.0%이고, 내적 일치도에 따른 Cronbach의 알파값은 0.815와 0.832로서 사상체질진단 설문지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할 수 있다[13].

3.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JTCI 12-18)

오현숙, 민병배에 의해 표준화가 이루어진 한국판 JTCI 12-18(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을 사용하였다. 총 8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지않다 0, 별로그렇지않다 1, 약간그렇다 2, 그렇다 3으로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 R. Cloninger가 자신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만든 심리검사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 성격을 파악하여 개인의 고유한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리검사이다.

연구도구는 4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Noverty Seeking;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성(Persistence; P))과 3가지 성격 차원(자율성(Self-Direct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 초월성(Self-Transcendence; ST))으로 구성되어 있다[6].

4. 통계처리

피험자의 기질 및 성격검사의 각 척도 및 하위척도의 원점수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체질간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9.0(SPSS Inc,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p\text{-value}<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특성

연구 참여자 96명 중 체질설문지 미작성 1명, 성격 및 기질검사(JTCI)설문지 미작성 3명, 체질설문지 상 태양인 3명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89명을 분석하였다. 나이는 만 14-15세이고 성별은 모두 여자이며,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군간의 신장과 체중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질별 분포는 소양인 37명(41.57%), 태음인 30명(33.71%), 소음인 22명(24.72%)으로 나타났다(Table Ⅰ).

Table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asang Constitution	N=92	N=89 (except Taeyangin)	Height (cm)	Weight (kg)
Taeyangin	3(3.26)			
Soyangin	37(40.22)	37(41.57)	160.95±4.90	51.65±7.54
Taeeumin	30(32.61)	30(33.71)	160.24±4.92	51.91±6.64
Soeumin	22(23.91)	22(24.72)	158.38±4.44	48.77±5.3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2. 기질 및 성격 검사 결과

기질척도 차원에서 NS(Noverty Seeking; 자극추구)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Harm Avoidance; 위험 회피)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RD(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성)는 소양인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P(Persistence; 인내성)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Ⅱ).

성격척도 차원에서 SD(Self-directness; 자율성)는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C(Cooperativeness; 연대감) 및 ST(Self-transcendence; 자기 초월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Ⅲ).

Table Ⅱ. TCI Results of Each Sasang Constitution-Temperament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NS*	54.05±10.72[a]	45.30±9.05[b]	42.91±8.55[b]	48.35±10.76	< 0.001
HA*	44.81±10.52[a]	51.20±10.19[ab]	57.00±8.12[b]	49.98±10.92	< 0.001
RD*	52.46±10.45[a]	45.87±11.41[b]	50.41±7.53[c]	49.73±10.46	0.033
P	49.62±10.96	49.00±9.89	48.86±9.95	49.22±10.25	0.95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Ⅲ. TCI Results of Each Sasang Constitution-Character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SD*	51.65±9.94[a]	45.83±8.94[ab]	43.59±9.65[b]	47.70±10.05	0.004
C	50.38±10.13	51.87±9.20	54.14±8.68	51.81±9.49	0.343
ST	48.43±9.66	44.80±11.55	47.73±10.07	47.03±10.49	0.34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3. 기질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기질차원 하위 척도에서 NS1, NS4에서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S2, NS3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Table Ⅳ).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Ⅴ).

RD1은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RD2는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소양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3는 태음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Table Ⅵ).

Table Ⅳ. Subscale of NS Result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NS1*	6.76±1.28[a]	5.40±1.59[b]	5.55±1.77[b]	6.00±1.63	0.001
NS2*	5.68±2.17[a]	4.63±2.24[ab]	3.82±1.92[b]	4.87±2.24	0.006
NS3*	5.08±2.29[a]	4.07±2.49[ab]	3.23±1.97[b]	4.28±2.38	0.011
NS4*	6.00±2.92[a]	4.20±1.83[b]	4.32±2.080[b]	4.98±2.52	0.00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Ⅴ. Subscale of HA Result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HA1	5.73±1.92	6.53±1.83	6.77±1.80	6.26±1.90	0.076
HA2*	3.78±2.37[a]	4.67±2.32[a]	6.23±2.18[b]	4.69±2.48	0.001
HA3*	6.03±3.25[a]	8.83±2.89[b]	10.05±2.72[b]	7.97±3.43	0.000
HA4	2.46±1.52	2.30±1.73	3.00±1.63	2.54±1.62	0.28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Table Ⅵ. Subscale of RD Resul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Taeeumin	Soeumin	Total	P-value
RD1*	4.08±1.82[ab]	3.33±1.95[a]	4.68±1.43[b]	3.98±1.83	0.027
RD2*	9.62±3.15[a]	6.77±3.22[b]	7.32±2.51[b]	8.09±3.27	0.001
RD3*	3.70±1.41[a]	4.57±1.10[b]	4.36±4.36[c]	4.16±1.36	0.02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raw score, *p<0.05(By One way ANOVA test)

4. 성격차원 하위 척도 검사 결과

성격차원 하위척도에서, SD3는 소양인의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가 6.54±2.09로 태음인의 5.23±1.85, 소음인의 4.50±1.44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SD의 기타 하위척도 및 C, ST의 모든 하위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총괄 및 고찰

청소년기는 대체로 성적, 정신사회적 성숙을 가져오는 신체적, 정서적 과정으로 시작되어 독립과 사회적 생산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로, 성인과 같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심을 갖게 되며 성인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인지적으로는 아동기보다 진보된 사고능력이 나타나며 사회적으로는 아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진학 및 직업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등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1,14].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 각 개인이, 인성발달의 원재료이며 기본 틀이 되는 기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 등을 포함하는 자기개념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한다는 것은 필수 과제라 하겠다.

이에 저자는 만 14-15세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개인의 체질, 기질 및 성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사상체질 판별은 TS-QSCD(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체질을 확정하였다.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지는 1987년 고 등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Ⅰ)가 개발된 이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를 거쳐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후속 연구에 의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진단정확률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QSCC-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QSCC-Ⅱ+ 및 QSCC-Ⅲ 등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문 기법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진단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12].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는 지금까지의 각 체질별로 4개의 판별함수를 두고 이에 다른 값을 비교하여 체질을 판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2단계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첫 번째 단계에서 양인과 음인을 가리는 문항들에 의해 양인과 음인을 분류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음인 중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고 양인 중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을 가리는 방식이다. 신 등[13]의 표준화 연구에서 TS-QSCD를 통한 전체 판별률은 65.0%이고 TS-QSCD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Cronbach의 알파값은 0.815와 0.832로서 TS-QSCD는 체질진단 설문지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할 수 있다[13]. TS-QSCD는 10대~60대를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0대 대상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양인 평균연령 17.29±4.27, 음인 14.84±5.63으로 밝히고 있어[13] 14-15세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체질 판별에 적용하였다.

한편, JTCI(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는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기질 및 성격검사 TCI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의 청소년용이다. 이 검사는 인성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로서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JTCI는 총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기질 차원의 4개 척도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며, 성격 차원의 3개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다. 국내에서는 오현숙과 민병배에 의해서 독일형 JTCI(JTCI 12-18)가 표준화되었으며, 4점 척도의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규준이 따로 만들어졌다. 중학생 집단에서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63에서 .81의 범위였으며, 이는 독일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6-8].

분석 결과, 기질분석 중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에 대한 탐색과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NS (Noverty Seeking; 자극추구)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HA (Harm Avoidance; 위험 회피)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친밀감 혹은 애착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위해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 즉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며 행동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있는 RD(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성)는 소양인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간헐적인 강화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취라는 보상을 위해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P(Persistence; 인내성)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격분석 중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SD(Self-directness; 자율성)는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개인이 다른 사람들, 사회, 인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을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C(Cooperativeness; 연대감) 및 개인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우주만물과의 일체감, 영성 및 종교적 신앙의 수용, 조건에 관계없이 평온함과 감사를 느끼는 것과 관련된 ST(Self-transcendence; 자기 초월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상 체질인 간의 JTCI 척도의 하위 척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상의학에서의 체질 특성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NS(Noverty Seeking; 자극추구)에서 NS1, NS4에서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S2, NS3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NS1(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나 활동에 쉽게 빠져들고 스릴과 흥분, 모험을 즐기며 단조로운 것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익숙한 장소나 사람, 상황에서 더 만족을 느끼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자신이 지속해 온 행동방식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NS2(충동성/심사숙고)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감정변화가 극적이고 순간적인 인상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기분파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며 충동 조절이 어렵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심사숙고형의 사람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때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NS3(무절제/절제)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돈, 에너지, 감정 등을 잘 절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화려하며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아끼고 조심하며 매사에 통제를 잘 한다. NS4(자유분방/질서정연)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가 없는 활동을 선호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하며 화를 내는 데 더디며 분노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5].

따라서 NS 전반적으로 소양인이 높은 것으로 보아,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모험을 즐기며 변화를 추구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거나 자유분방함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음인은 이와 반대로 심사숙고형의 사람이며 돈, 에너지, 감정 등을 절제하며 매사에 조심하는 성향을 띤다. 태음인은 관습적 안정성이나 질서정연 등에서 소음인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나 심사숙고나 절제에 있어 소양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2(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불확실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로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하여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용히 지내고자 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도 침착하고 오히려 즐긴다. HA3(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어하며 자기주장이 부족하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사교적이며 대담하며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6].

따라서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불확실하거나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소음인과 태음인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소양인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오히려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RD1은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RD2는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소양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3는 태음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RD1(정서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감정적 호소에 마음이 깊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며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강인하고 현실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여 종종 실리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RD2(정서적 개방성)가 높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는 등 사회적 접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열려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쉽게 가까워진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 친해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RD3(친밀감/거리두기)가 높은 사람은 개인 생활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더 선호한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관심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6].

RD의 하위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타난 체질이 각각 달랐는데, 소음인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경향을 보인 반면 태음인이 실리적인 경향을 보였고, 타 체질에 비해 소양인이 가장 사회적 교류에 개방된 경향을 보였으며, 태음인에서 따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 소음인, 소양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SD3는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SD 하위척도와 C, ST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D3(유능감/무능감)가 높은 사람은 심리적 자원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기술되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찾는 데 주도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를 도전이나 기회로 받아들인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무력하고 비효율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6]. 따라서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문제해결에 주도적이며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기질 척도와 기질차원 하위척도에서 체질간 여러 가지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성격 척도에서는 SD 만이 성격차원 하위척도에서는 SD3 만이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전의 이 등[9]과 Park 등[1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최[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기질은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일생동안 안정적 속성을 보이며,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측면이지만, 개인의 타고난 기질은 이후 성격발달에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6]는 점 또한 중요하다. 한편 사상의학은 일반적으로 체질의 선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心慾, 知行과 같은 후천적 부분도 체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만 14-15세의 중학생인 만큼, 기질에 따른 성격형성은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연구들 사이에 보이는 차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스스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만 13-15세의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96명 중 설문지 미작성 4명, 태양인 3명을 제외한 총 8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TS-QSCD와 JTCI를 통해 각각 체질과 기질 및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질척도 차원에서 NS는 소양인이 태음인 및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는 소양인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2. 성격척도 차원에서 SD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기질차원 하위 척도 결과, NS1, NS4는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S2, NS3는 소양인이 소음인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HA2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A3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1은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RD2는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소양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D3는 태음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세 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4. 성격차원 하위척도에서, SD3는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일조각. 2008:661-2.
2. 김용례. 청소년 기질 및 성격특성과 비행성향 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 송일병, 이문재. 사상의학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0;16(1):42-5.
4. 설유경, 김종원. 사상의학에 나타난 성정의 개념과 뇌와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7-33.
5. Chae H, Lyoo IK, Lee SJ, Cho S, Bae H, Hong M, Shin M. An alternative way to individualized medicine: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03;9(4):519-28.
6.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주)마음사랑. 2007.
7. Constantino J.N., Cloninger C.R, Clarke A.R., Hashemi B., Przybeck T.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2002;109:229-43.
8. Gillespie N.A., Cloninger C.R., Heath A.C., Martin N.G. The genetic and environmental

relationship between Cloninger's dimension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3;35:1931-46.
9. 이재형, 채한, 박수진, 권영규. QSCC-Ⅱ반복측정결과 동일체질로 판정된 사람의 기질 및 성격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5):1319-31.
10. Park SH, Kim MG, Lee SJ, Kim JY, Chae 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typology in an adult clinical sampl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1:1-7.
11. 최대성. 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한 사상체질 연구. 기질 및 성격검사(TCI)를 통한 사상체질 특성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2. 김영원, 신동윤, 김정호, 최대성, 임미경, 이경로, 송정모.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의 개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1):75-90.
13. 신동윤.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의 표준화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4. 이지원.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비행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